

<나의 삶 나의 하나님>

### 이제 나의 목표는....

양영자<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몽고선교사>

초등학교 3학년때 탁구를 시작한 저는 중학생 때 국가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 테니스엘보우라는 팔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진통 주사를 맞지 않으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6년. 진통주사의 효과는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18살의 어린 나이로 이제는 마지막 출전이라고 생각했던 도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뜻밖에도 중국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노력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고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는 권유를 듣고 별 생각 없이 기도원에 가보았습니다.

그 때 십자가에서 피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6년 동안 저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던 테니스엘보우가 극적으로 치료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제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저의 명제가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켓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련은 닥쳐왔습니다.

또다시 저는 간염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라켓을 잡고 연습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국가대표에 복귀할 수 있었고 '86아시안게임에서 현정화 선수와 더불어 중국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과 또 다시 만난 복식 결승전... 결승전 당일 우리는두손을 마주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수 없을 것이라던 중국 탁구의 벽을 우리는 기도로 넘어섰던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올림픽 금메달을 조국의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몽고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요 힘이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회"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3권 2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7월22일
☎520-9464/021-292-1639.☒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 하나님의 우물에서 지혜를 담으십시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황실에 있는 커다란 작전지도 를 본 사단장이 작전지도가 훌륭하게 제작되었다고 칭찬을 한 후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다른 부대의 상황실에다 설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도를 만드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는데, 그 사단장이 다른 부대에 가서 보고를 받는 일정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작전지도를 만든 장본인은 이미 그 부대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부대장은 부대의 모든 장교와 장병을 뒤져서 제도와 설계를 전공하였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 유명한 대학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지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병사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병사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커다란 건축설계용 T자형 자와 줄자, 기타 컴퍼스 및 설계도구들.... 그 부대는 없는 돈을 들여서 이 모든 것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 병사는 '지도를 30등분으로 나누어 한 칸씩 정밀 측정한 후에 다른 설계 판에 옮겨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지도를 30등분한 한 칸의 모든 구조물표시를 좌표화 시켜서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 작업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때쯤 그 부대에서 제대를 기다리던 어떤 병장 한사람이 어슬렁거리며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농사일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장이 갑자기 그 상황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건축설계를 전공했던 병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니 모하노?" "....." "애고 이런 놈이 무슨 집을 짓는다고 쫓쫓.... 퍼뜩 가서 전지 한 장 가져 온나 "

사람들이 커다란 전지(커다란 종이)한 장을 가지고 오자 이 병장은 작전 지도 위에 탁 포개 놓고 볼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비춰지는 지도의 선을 연필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도 안되어서 완전 똑같은 작전지도가 그려졌습니다.

모두들 입을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없는 지식은 우매한 자의 자랑거리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언 9:10)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8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1(시편 9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61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일영 집사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복의근원 강림하사'	부부성가대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인 도 자
설 교 Sermon		김건일 목사
찬 송 Hymn	434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7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7월1	김종건	정의령	최재학.노은숙	김교섭.김성국	김종건.정희자
8	노은숙	조순정	김교섭.정희자	김시욱.김영길	박일영.임혜자
15	박영태	지찬영	김시욱	김종건.박영태.	최윤호.송정섭
22	박일영	최윤호	김영길.신경화	박정자.박일영	최재학.정희자
29	박정자	최재학	김종건.지찬영	변지웅.이경석	박영태.정리령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학생.청년부: 토요 4:00
------------	---------------	--------------	-----------------

###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요한, 사도행전(1):2명. 사도행전(11):2명
2. 오늘 말씀 전해주시신 김건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향존직분자 선출: 7월 마지막 주일(29일)에 갖습니다.  
덕스러운 선거와 섬기는 직분자들의 피택을 위해 2주간 하루한끼금식기도에  
전 교우들의 참여바랍니다(기도참가표)
4. 목회자소식  
한국방문중인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 ◆7월의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1일		구역예배(6일)
8일		식사교제.청년, 학생부 수련회
15일	교회창립기념주일	임시동역자회의
22일		
29일	공동의회	교사기도회(3일)

\*\*\*\*\*

### 용서의 힘

어느 군부대에 사납고 심술궂은 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을 골탕 먹이고 괴롭히는 일을 취미로 삼고 재미있어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부대 안에서 일을 하는 어느 민간인을 늘 못살게 굴며 괴롭혔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 그 민간인은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평소에 크리스찬을 아니꼽게 여기던 상사는 그 모습을 보자 심술이 발동하여, 진흙이 잔뜩 묻은 가죽 장화를 그 사람의 머리와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상시간에 일어난 그 상사는 깨끗하게 닦여져 침상 밑에 놓인 자신의 장화를 보았습니다. 그 날 이후, 상사의 못된 버릇은 사라졌고,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21)